

종단소식

조계종

해인사 여름 수련대회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는 27일부터 8월11일까지 보경당에서 여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일반부는 27일~7월1일, 7월 4~8일, 7월 11~15일, 7월 18~22일, 8월 7~11일 5차례이며, 중·고등부는 7월 25~28일, 어린이부는 7월 29~31일까지. 0599)31-1003

태고종

전국신도회 조직 개편

총무원(총무원장 안곡)은 전국신도회 조직을 개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국 시도교구 총무원에 교구별 신도회 결성 여부를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 신도회 조직을 이달 말 7지 각 시도교구별로 구성하고 6월 초에 전국신도회장 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통일기원 수륙 방생법회

대구·경북교구총무원(총무원장 일우)은 지난 11일 안동 시민공원에서 남북통일 및 국난극복 기원 수륙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일우스님은 대회를 통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해 국가위상을 제정립하고 평화통일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교계가 앞장서서 범국민적 의식개혁을 이끌어내자"고 호소했다.

천태종

서울 구강사 기공식

구강사(주지 월제)는 지난 18일 서울 강동구 천호4동 일대의 250여평의 부지에 사찰 건립을 위한 낙성식을 봉행했다. 그 동안 일반주택에서 법회를 운영해 오던 구강사는 신도들이 사찰건립에 대한 열의를 세워 천호동 일대에 부지를 매입, 공사를 착공하게 됐다. 구강사는 관청의 허가가 나는대로 그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진각종

기초 진원식 봉행

장년을 맞은 스승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기초진원식이 지

난 12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봉행됐다. 이날 기초진원식은 해안정, 자비화, 각암, 일승행, 선심달, 대자심, 정공심, 우승, 청담월 스승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륜심인당 헌공 불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소재한 선륜심인당(주교 덕운) 헌공불사가 지난 19일 봉행됐다.



선륜심인당은 연건평 3백90여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유치원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

총지종

예비성직자 기본 교육

법장원(원장 안효강)은 지난 18~24일 1주일간 예비성직자 대상 교화, 결인, 진인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예비성직자들은 법장원에서 기본교육 후 최소 7개월간 각 시인 스승 아래에서 성직자 소양 및 교화교육을 받는다.

원흥종

총무원장 법륜스님 대행

총무원은 지난 7일 중앙종의 회를 열고 그 동안 사의를 표명한 원흥종 총무원장 보인스님의 사표를 수리함에 이어 부총무원장 법륜스님을 총무원장 직무대행에 선출했다.

또 11명의 중앙종회의원을 보선하고 6월 25일 삼교전에서 개최할 국난극복기원법회 및 영산수륙대제 개최에 따른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미타종

성우스님 총무원장 취임

제5대 총무원장 취임식이 지난 21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봉행됐다. 총무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계속돼 오던 미타종은 지난 12일 종정의 재가를 얻어 성우스님을 총무원장에 추대했다. 성우스님은 1973년 벽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미타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만해기념관 문 열었다

남한산성에 교육관·세미나실 등 갖춰 자료 6백점 전시 '만해정신' 계승 확산

만해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만해기념관(관장 전보삼)이 문을 열었다. 만해사상연구회 전보삼회장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 20일 남한산성 수어장대 아래에 문을 연 만해기념관은 대지 5백20평, 연건평 1백20평 규모의 전통한옥 2층건물, 종합전시실(60평)을 비롯해 기획전시실(20평), 교육관(40평), 세미나실,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어 만해정신의 계승과 확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종합전시실에는 전관장이 30여 년 동안 수집한 만해스님 친필유묵, <조선불교유신론>(1912년) 등 만해스님의 각종 저술의 초간본, 3·1운동 당시 옥중투쟁을 보여주는 신문자료, 희귀본인 <님의 침묵>초간본 및 1백여종의 이본, 만해스님 관련 연구서 등 6백여점의 관련 자료가 전시돼 만해스님의 종교·사회·문화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정원에는 만해기념관 표지석 및 만복전 前 홍익대학교가 조각한 만해스님 흉상, 나뭇배와 행인 시비 등을 세웠다. 기념관 관람을 통해 느낀 만해정신을 현장에서 직접 표현할 수 있는 후모의 장도 마련, 만해사상 전시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최보사 조실 석주스님, 동국대 역경원장 원운스님, 경기광주·하남시암연합회



만해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망할 수 있는 만해전시관이 20일 남한산성에 문을 열었다.

장 지근스님, 명호근 만해사상실 천선양회장, 박찬수 목아박물관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으며 만해기념관 표지석 및 만해스님 흉상, 시비 제막식도 함께 거행됐다. 명호근 만해사상실천선양회장

인터뷰

만해사상연구 전보삼회장



"남한산성의 만해기념관은 만해스님을 연구하고 추모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자료를 모으고 그 정신의 확산을 위해 새로운 기운을 일으키는 모태가 될 것입니다" 만해사상연구에 평생 바쳐 온 전보삼교수(신구대)가 만해기념관 건립을 발원한 것은 88년 독립기념관에서 만해스님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을 후원하면서부터. 당시 자신이 수집한 만해스님 관련 자료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간 것을 확인한 전교수는 상설 전시관을 세워 만해사상을 널리 알리고 계승시켜야겠다는 의지를 세웠다. 89년부터 만해기념관 부지 옆 주택을 빌려 임시로 각종 자료를 전시하고 기념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건립허가에만 3년이 걸렸다. 자택과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 등을 팔아 비용을 마련했고, 평생 모은 자료 6백여점도 전시자료로 내놓을 결심을 맺게 된 것이다. 전보삼교수는 "만해사상을 선양함은 물론 행락지로 변해가는 남한산성의 민족정신을 다시 한번 집중 조명하는 민족문화의 자리로 가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기석 기자

산사 코앞에 고층 아파트

선산 원각사 환경권 침해...9개단체 진정

전통사찰인 선산 원각사(주지 대혜) 인근에 총 5개동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 중 12층 규모의 1개동은 사찰경계로 부터 5m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찰의 조망권을 비롯한 환경권을 크게 저해 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 2백2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97년 12월 착공하여 99년 12월 준공예정인 공공임대주택 3백85세대(선산을 노상리 48번지 일대)로 12층 2개동, 13층 2개동, 14층 1개동으로 건립되고 있다. 원각사 주지 대혜스님은 "아파트가 너무 가까워 시야가 가릴 뿐 아니라 법회 때 외부 스피커를 사용할 경우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건립과 관련 원각사 구미불교사찰연합회 직지사신도회 구미운불회 등 9개 불교단체는 1천5백21명의 연명으로 "종교활동에 지해하는 고층아파트의 건립을 용납할 수 없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지난 20일 구미시청과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에 제출했다.

김천사암련 무료급식소 어려운 이웃에 점심제공

김천불교사찰연합회(회장 법등 직지사부주지)는 28일 12시 오후 1시 30분부터 무료급식소를 개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점심을 제공 할 예정이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불교에 대한 친근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무료급식은 사찰연합회 소속 사찰들이 돌아가며 담당 할 계획이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 실시한다.

분황사 상량문 또 발견 1616년 중건 시주자 기록

경주 분황사 보광전 상량문이 지난 3월에 이어 또 발견됐다. 보광전 보수공사 도중 중도리에서 발견된 상량문은 보존상태가 좋 지않아 관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분황사의 증연년대와 약사불 조성내력, 목수와 부목수, 시주자 등의 이름이 확인됐다. 그러나 앞서 밝혀진 1380년 분황사 중건설과 달리 만력44년(1616)에 완공된 것으로 적혀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日 東大寺에 불 日本 화엄종 분산이며 15대 대사(大寺)의 계단원(戒壇院)에서 지난 20일 불이나 소빙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불로 나리시대를 상징하는 사천왕상 등 국보급이 안치된 천수당이 전소됐다.

태고종 후원 천불영탑 세운다 인천 일광정사에 2만평규모 99년 완공

태고종 종단차원의 후원으로 대규모 영탑 조성 사업이 건립된다. 태고종 일광정사(원장 정태진)는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 121-3번지 일대 2만여평의 부지에 본래 지장천불 영탑을 조성한다. 불교계가 앞장서서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들게 됐다는 정태진 원장은 "영탑 분양에 따른 수익금은 등방불교대학 건립 및 종단발전기금, 대한불교법사회 중앙법당 건립, 청소년회관 건립, 군불교포교기금으로 25억을 보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태종 한중일 1400년 역사 재조명

btn 개산기념 특집 방영 와의 관계 등을 현장추적과 역사 재현을 통한 드라마형식의 역사 추리 기법으로 구성됐다. 22일 방영되는 제1편 <천태산에 불연 비람>에서는 지난해 중국 천태산에서 있었던 국청사 조사당 준공 사건을 계기로 중앙삼국에서 그 교세를 떨치고 있는 천태종의 역사와 종지, 증종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29일 방송되는 제2편 <개

성에 핀 연꽃>에서는 대각국사의 천애에 의해 개산된 한국 천태종의 역사를 각 시대로 알아보고 우리 역사속에 천태종이 차지했던 위치를 확인해 현재 한국불교속에 천태종이 어떻게 허락돼야 하는지를 전달하고 있다. 6월5일 선보이는 제3편 <소백에 뜬 달>에서는 해방이후 소백산에서 시작한 천태종의 현대사를 살필원각 대조사의 일대기, 재건된 천태종의 현황과 현대화된 포교방식, 엄격한 수련과정을 알아본다.

Advertisement for 'Sannin' (산신)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ountain landscape and text: '여래사 중흥·소원성취 만등불사 산신기도도량 여래사 주지 정수합장'.

Advertisement for 'Sannin' (산신)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ountain landscape and text: '여래사 주지 정수합장'.

Advertisement for 'Sannin' (산신)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ountain landscape and text: '귀의 삼보하옵시고, 옛부터 우리나라에 환란이나 재변이 있을 때마다 명산의 대사찰에서 국토위호 불리신이며 산신국사 호정상을 모셔 놓고 산왕대신 기도를 올리는 산신문화가 전해져 내려 오고 있습니다.' Includes a map of the area.